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태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방사우(文房四友)를 모티브로 한
도자 데스크웨어 연구
- 동물형상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미혜

문방사우(文房四友)를 모티브로 한
도자 데스크웨어 연구
- 동물형상을 중심으로 -

박태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미혜


인 준 서

김미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한영숙 (인) 

심사위원 김시만 (인) 

심사위원 박태성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고상한 멋과 품위를 지니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은 자주 사용하는 서재에 자신들의 취향이 담긴 문방사우를 두어 예술적 취향과 관심사를 드러내곤 했다. 문방사우는 실용적이면서도 예술성이 뛰어나며, 완상을 통해 심신을 수양하는 역할도 겸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정보화와 기계화의 발전으로 인해 문방사우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책상 위에서도 도자기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라져가는 문방사우 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도자 데스크웨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문방사우에는 다양한 동물 형상이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길상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술성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소재인 동물 형상을 중심으로 상징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방사우의 지, 필, 묵, 연(紙筆墨硯)을 기준으로 문방용품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문방사우 속 동물 형상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구체적인 용어로 정리하였다.

도자 데스크웨어의 제작에 있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는 동물 형상을 중심으로 의인화에 의한 스토리 구성과 문방사우의 기능성과 조형성을 융합하여 새로운 데스크웨어 디자인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문방사우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새롭게 도출된 조형표현 방법을 데스크웨어 제작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전통의 서재 문화 확산과 현대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본론	3
1. 문방사우	3
1) 문방사우의 종류	3
2) 문방사우의 동물	9
2. 데스크웨어	17
1) 도자 데스크웨어의 종류	17
2) 도자 데스크웨어의 제작 및 구성	19
3. 작품 제작	27
1) 제작방법	27
2) 시작품	30
III. 결론	4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종이(紙)와 관련된 문방용품	4
【표 2】 붓(筆)과 관련된 문방용품	5
【표 3】 먹(墨)과 관련된 문방용품	6
【표 4】 베풀(硯)와 관련된 문방용품	7
【표 5】 그 외 문방용품	8
【표 6】 해태 관련 유물	9
【표 7】 용 관련 유물	10
【표 8】 거북 관련 유물	11
【표 9】 쥐 관련 유물	12
【표 10】 토끼 관련 유물	13
【표 11】 원숭이 관련 유물	14
【표 12】 닭 관련 유물	15
【표 13】 돼지 관련 유물	16
【표 14】 도자 데스크웨어 사례	18
【표 15】 해태 문진 세트	19
【표 16】 용 문진과 명함 케이스 세트	20
【표 17】 거북 문진과 문구 합 세트	21
【표 18】 쥐와 경상 세트	21
【표 19】 토끼와 향 합 세트	22
【표 20】 생각하는 원숭이 세트	22
【표 21】 닭 촛대 세트	23

【표 22】 돼지와 화병 세트	23
【표 23】 경상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24
【표 24】 필통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24
【표 25】 목상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25
【표 26】 목통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25
【표 27】 벼루집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26
【표 28】 실리콘과 석고 교반 배합비 및 건조 시간	29

작 품 목 차

【작품 1】	해태 문진	30
【작품 2】	용 문진	31
【작품 3】	거북 문진	32
【작품 4】	거북 합	33
【작품 5】	쥐와 경상	34
【작품 6】	토끼와 향 합	35
【작품 7】	생각하는 원숭이	36
【작품 8】	닭 촛대	37
【작품 9】	돼지와 화병	38
【작품 10】	서재 속 동물들	39

I.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책상은 본래의 기능 외에도 생각을 정리하거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옛 선조들의 서재는 ‘문방(文房)’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에서 자주 사용되는 4가지의 도구들을 친구처럼 여겨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 하였다. 문방사우는 그 실용성과 함께 예술성을 겸비하고 있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문방용품을 서재에 장식하여 본인의 미적 취향을 뽐내었다.

옛 선비들의 서재는 ‘문방청완(文房淸玩)’¹⁾이라는 문화를 향유하는 행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햇살이 드는 창과 정돈된 문방사우 그리고 향을 피우며 향유하는 고도의 문화적 행위였다. 또한 그들이 사용한 문방사우 중에는 동물 형상의 문방구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길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조형적 소재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 붓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축소되어 점차 문방사우의 역할은 사라져갔지만 그 안에 담긴 미의식과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재조명될 가치가 충분하다.

본 연구는 문방사우의 정신과 디자인을 모티브로 문방용품, 즉 데스크웨어를 제작하여 새로운 디자인적 가능성과 폭넓은 문화적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문방용품 제작에 있어 수공예적 요소와 도자공예의 접목을 통한 도자 데스크웨어 제작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도자공예품의 기능과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1) 권도홍, 『문방청완 文房淸玩』, 서울: 누리미디어, 2011, p.6.

2. 연구범위와 방법

문방사우는 본래 '종이, 붓, 먹, 베틀' 4가지의 문방 도구를 일컫는 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지필묵연(紙筆墨硯) 외 문방용품까지 문방사우의 영역을 확대하여 데스크웨어 제작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필묵연(紙筆墨硯)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기능과 조형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그중 동물 형상이 가지는 조형적 가치에 주목하여 문방에서 쓰인 동물 형상 유물에 대해 조형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 정리하였다.

특히 동물 형상의 파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특정 동물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사용 용도와 시대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문방사우에 담긴 조형적 특질과 함축된 의미를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작품 제작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데스크웨어의 제작에 있어서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제작된 선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스크웨어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스토리 구성에 의한 표현 방법과 실질적 기능 부여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는 와목과 실리콘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과 몰드 제작에 대해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유약 및 소성 방법을 중심으로 장식 표현을 시도하였다.

II. 본 론

1. 문방사우

1) 문방사우의 종류

옛 선비들의 서재, 즉 문방(文房)에서 사용되는 필수용품은 ‘종이(紙) . 붓(筆) . 먹(墨) . 베풀(硯)’로, 이를 친구에 비유하여 ‘문방사우(文房四友)’라고 불렀다.

문방에서는 이러한 용품 이외에도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있으며 예를 들면 지통, 문진, 고비, 필통, 필가, 필산, 필세, 묵통, 묵상, 묵호, 연적, 연병, 연합, 인장, 서안, 향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필묵연(紙筆墨硯)에 해당하는 위의 품목들을 대상으로 사용 용도 및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종이(紙)

종이는 후한시대 화제(和帝) 때 궁중의 물자 조달 책임자였던 채륄(蔡倫)이 종이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3~4세기 경에 중국의 제지술이 전해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²⁾

예로부터 종이는 생산이 까다롭고 생산능력 또한 미흡하여 귀하게 여겨졌기에 작은 종이라도 귀하게 여겨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지통이나,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고비, 그리고 종이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문진 등이 생겨났다.

지통은 원통형의 모양부터 6각이나 8각으로 면을 친 형태, 화형, 대나무형, 자연물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동물이나 꽃 등 자연물을 소재로 한 무늬가 많으며, 청화, 투각, 양각,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필통과 유사한 형태를 가

2) 한국제지협회 (http://www.paper.or.kr/sub_3/3_1.php)

지고 있지만, 종이를 담기 위해 높이가 더 높고 크다.

문진은 주로 긴 막대형의 형태가 많이 쓰이지만 거북, 오리, 사자, 대나무, 등 동물이나 식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조각, 투각, 입사, 등 화려한 장식으로 외형을 장식하였다.

고비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며,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벽에 거는 형태가 많이 사용된다. 나무 판과 판 사이에 종이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앞면에는 꽃이나 대나무 풀 등 식물 문양을 조각하여 예술성을 더하였다.

【표 1】 종이(紙)와 관련된 문방용품



(2) 붓(筆)

붓은 중국 진나라의 몽염(蒙恬)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붓을 사용한 기록들이 있다. 한반도의 경우 가야국의 옛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 2000년을 조금 넘긴 것으로 파악되며, 지금의 붓과 외형적 차이는 거의 없다. 붓은 주로 동물의 털이나 수염 등을 이용하며, 사용되는 털은 양털, 토끼털, 족제비 털 등이 있다.³⁾

붓은 먹을 갈아 만든 먹물을 사용하기에, 사용 중의 보관과 세척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로부터 붓을 임시로 놓거나, 세척을 위한 특별한 용품들이 제작되어 붓털을 보호하거나 먹물 등의 오염을 막을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3) 이연수, 『문방보품/李年洙編』,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01, p.13.

필통은 원통형, 각형, 죽형, 나무형, 동물형 산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길이가 다른 붓을 꽂기 위해 높이가 다른 통을 여러 개 붙여 만든 형태도 있다. 또한 외형에는 용, 십장생, 학, 꽃, 나무 등 동물과 식물무늬 등이 투각, 청화, 철화, 양각,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장식되었다.

필가는 사용하던 붓을 걸쳐놓기 위하여 끝이 있는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진 도구이며 용, 산, 베개 모양 등이 있다. 그중에서 산 모양의 필가를 필산이라고 하는데 산봉우리 사이에 붓을 걸치는 형태이다, 또한 청화, 철화 투각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작지만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필세는 붓을 닦거나 물을 섞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써 입구가 좁은 항아리 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사각형, 육각형, 화형, 방형, 산형, 오리형, 등 다양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화와 철화 등으로 그림을 그려 걸면을 장식하였다.

【표 2】 붓(筆)과 관련된 문방용품

		
<p>① 필통(筆筒)</p>	<p>② 필가(筆架) . 필산(筆山)</p>	<p>③ 필세(筆洗)</p>

(3) 먹(墨)

먹은 옷이나 송진 등의 그을음으로 만든 등근 형태의 묵환(墨丸)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태와 비슷한 먹은 한대(漢代)에 들어왔으며 소나무의 그을음으로 처음 만들어졌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4) 장재천. 「문방사우의 교육 문화적 의의」, 韓國思想과 文化, Vol.51 No.-, 2010, pp.293-294.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먹으로 된 묵서(墨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먹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먹은 보통 벼루에 갈아서 먹물을 사용하기에, 사용 전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용품이 필요하게 되며 묵통, 묵상, 묵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묵통은 먹을 담아 차고 다니는 휴대용 통이다. 뚜껑에는 고리를 달아 열기 편하게 되어있으며, 통 가장자리에는 실을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있다. 이는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몸통에는 새나 꽃등을 새겨 장식하였다.

묵상은 먹을 올려 두기 위한 도구로, 받침이나 책상의 형태를 하고 있다. 책상의 형태에는 낮은 다리가 있는 형태와 양 끝이 안으로 말아져 다리가 되는 형태가 있으며 다리 부분에는 동물이나 식물문양 등을 조각하였다.

묵호는 쓰고 남은 먹물을 보관하는 병으로써 원형, 사각형, 항아리형, 동물형 등 다양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관에는 청화, 양각 등의 기법으로 꾸미거나 도마뱀, 개구리 등 작은 동물을 붙여 장식하였다.

【표 3】 먹(墨)과 관련된 문방용품

		
① 묵통(墨筒)	② 묵상(墨床)	③ 묵호(墨壺)

(4) 벼루(硯)

동양에서 벼루는 너무 오래되어 구체적인 역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야와 삼국시대에 도연(陶硯), 토제연(土製硯), 석연(石硯) 등이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⁵⁾ 조선시대에는 형태, 조각 장식, 문양 등이 다양한

벼루가 제작되었으며 그 예술적 가치 또한 매우 높았다. 특히 선비들에게 있어 벼루에 먹을 가는 행위는 마음을 갈고닦는 도량이었기에 벼루를 일생을 같이하는 반려로 여겨졌다.

벼루는 주로 직사각형 모양이 일반적이며 원형, 팔각형, 타원형 동물형 등이 있다. 또한 조각, 상감, 투각,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벼루의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연적은 벼루에 붓을 담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으로써 모두 속이 비어있고 풍혈, 수혈이라는 구멍 두 개가 나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형태는 원상, 사각형, 팔각형 등 기본 도형의 모양부터 잉어, 사자, 소, 복숭아, 무릎, 산 등 매우 다양하다. 문방용품 중에 가장 개성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영감을 얻고 친구처럼 여기던 선조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연갑은 벼루집이라고도 부르며 먹물이 주변에 튀거나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벼루를 올려두거나 보관하는 문방용품이다. 형태는 대부분 사각형인 것을 많이 쓰며 이 외에도 팔각형, 거북형 등의 모양이 있다. 벼루 관련 용품에는 거북 형상이 많은데 벼루가 문방용품 중에 가장 오래가는 도구이며, 거북 또한 장수의 상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 4】 벼루(硯)와 관련된 문방용품



5) 손환일, 『한국의 벼루』, 서화 미디어, 2010, p.16.

(5) 그 외 문방용품

문방사우는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수적인 용품이기는 하나 조선시대의 문방에 있어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용품들이 제작되었다. 그중 경상은 책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방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될 용품이었으며 신분에 따라 그 화려함의 정도는 매우 달랐다. 이외에도 문방에서의 향유를 위한 향과 시각적 풍유를 위한 화훼 용품 등이 다수 제작되었다.

인장은 글이나 그림에 낙관을 찍거나 특정한 사실을 증명할 때 쓰는 도장으로 옥, 자기, 나무,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다. 인장의 윗부분에는 사자, 거북, 용 등 동물 형상의 조각들이 등장하며 동물이 상징하는 길상적인 의미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다.

경상은 판의 양 끝이 위로 말려 올라가있는 특징이 있으며 몸체에는 작은 문방구를 담아둘 수 있는 서랍이 한두 개 달려있다. 과거에는 좌식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높이가 낮다. 몸체와 다리에 조각, 칠보 등으로 장식을 하거나 결구나 모서리에 장석을 달아 화려함을 더해 주었다.

향함은 뚜껑이 달린 함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원통형, 굽이 높은 제기형, 구형, 화형 등이 있다. 뚜껑을 열고 닫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동물을 달아 장식하기도 한다. 또한 결면에는 상감이나 청화, 양각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표 5】 그 외 문방용품

		
① 인장(印章)	② 경상(經床)	③ 향함(香盒)

2) 문방사우의 동물

문방사우에는 동물 형상의 용품 또는 동물을 이용한 장식적 요소를 많이 볼 수 있다. 동물이라는 주제는 인간에게 친숙한 존재이며 예로부터 인간의 의인화 소재로도 즐겨 사용하였기에 매우 상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 동물을 통한 상징적 표현과 그 동물의 특정 형상을 구현함으로써 제작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스토리를 작품에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신화적 동물부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까지를 범위로 설정하여 문방사우 용품의 조형표현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징적,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해태, 용, 거북, 쥐, 토끼, 원숭이, 닭, 돼지를 선정하여 유물에 사용된 예와 조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해태

해태는 해치(獬豸)라고도 부르며 상상의 동물 중 하나로 시비를 가리거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줄 안다고 한다. 해태는 양, 사자를 닮은 형상에 머리 가운데에는 뿔이 달려있고 온몸은 비늘로 덮여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외형의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다양하다.

【표 6】 해태 관련 유물

		
<p>① 광화문 해태상</p>	<p>② 대검찰청 해태상</p>	<p>③ 해태 연적</p>

①의 광화문 해태 상은 근엄하고 부드러운 외형이 특징이며, 머리에 뿔이 없는 대신 나선형의 돌기가 돌출되어 있다, 이 해태는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수호신,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의 대검찰청 해태 상은 머리의 뿔이 강조되고 염소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정의의 심판을 하는 동물로 여겨져 민중의 편에서 공정하게 심판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③의 해태 연적은 강아지 같은 형상에 몸이 비늘 대신 털로 덮여 있다. 주로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으며 입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형태이다. 해태가 화마를 막아주는 동물로 여겨져 물을 담아두는 연적에 그 형상을 새겨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2) 용

용은 상상의 동물이며, 그 생김새는 낙타의 머리,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암소의 귀, 뱀의 목, 개구리의 배, 잉어의 비늘, 매의 발톱, 범의 발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진다.⁶⁾

【표 7】 용 관련 유물

	
<p>① 고종 가상존호 옥보</p>	<p>② 용 모양 붓걸이</p>

6) 박영수,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내일 아침, 2005, p.19.

①의 옥보는 조선 26대 왕인 고종황제의 옥보 또는 옥새라고 하며 왕조시대의 권위와 전통성을 상징한다. 용은 신비와 위엄의 상징으로서 황제의 신분을 나타내었는데, 때문에 대한제국 선포 이후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옥보에서 나타나는 용의 생김새는 머리에는 뿔이 달려있고 큰 코와 비늘로 덮여있는 몸통이 특징이며 기존에 알던 용 보다 짧은 형태와 더욱 간략화된 생김새로 독특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아치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앞발과 뒷발 사이에 긴 술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②의 붓걸이는 원나라 시대에 쓰인 용 모양의 붓걸이이다. 두 마리의 용이 엮혀진 형태로 굴곡진 부분에 붓을 걸쳐놓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의 길이가 길어 여러 개의 붓을 보관할 수 있다.

(3) 거북

거북은 바다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병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다. 또한 거북은 바다와 육지를 모두 오갈 수 있는 수륙 양생 동물로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도 여겨졌다.

거북은 짧은 다리와 머리를 가진 동물로, 특히 등에 반구 모양의 등껍질이 특징이다. 이 등껍질은 육각형의 무늬가 새겨져 있어 예술적인 영감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장수, 지혜, 신과 인간의 매개자 등 다양한 길상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어 문방용품에도 자주 등장한다.

【표 8】 거북 관련 유물



①의 인장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端宗)의 어보이다. 어보는 임금의 도장을 뜻하는 말이며 손잡이에는 거북의 형태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신의 사자인 거북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와준다는 믿음에 비롯되었다. 거북의 머리는 고개를 위로 들고 있어 당당하고 기개가 있으며, 등껍질 무늬는 육각형의 섬세한 조각으로 표현되었다.

②의 벼루집은 벼루를 보관하는 벼루집을 거북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거북의 등껍질을 열면 벼루를 얹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북의 등껍질은 매우 단단하여 거북의 속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벼루집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4) 쥐

쥐는 부지런히 먹을 것을 저축하여 재물을 지키는 근면함과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2지 동물 중에서 첫 번째인 쥐는 짹짹 약삭빠르며 지혜와 피를 상징하기도 한다.

【표 9】 쥐 관련 유물 및 그림

	
<p>① 12지 장식품(쥐)</p>	<p>② 최북 '서설홍청(鼠嚼紅菁)'</p>

①의 12지 장식품은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쥐 형상의 황동 장식품이다. 세모난 얼굴과 작은 몸, 긴 꼬리가 특징이며, 귀여운 형태와 크기는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②의 서화에서는 쥐가 순무를 갉아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쥐의 긴 꼬리와 순무의 뿌리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싱싱한 순무와 쥐의 총명한 얼굴이 돋보인다. 선조들은 순무를 갉아먹는 소리가 돈을 세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믿어 이러한 그림을 문방에 걸고 감상하며 풍요와 복을 빌었다.

(5) 토끼

선조들은 토끼의 귀가 크고 다리가 길어 잘 듣고 행동이 빨라 그만큼 두뇌 회전도 빠를 것이라고 믿었으며, 피와 지혜가 많은 동물로 여겨졌다. 또한 귀여운 외모와 친근한 분위기로 인해 문방용품이나 공예품의 모티브로 자주 쓰인다.

【표 10】 토끼 관련 유물

	
① 백자 철화 토끼모양 연적	② 잡유 토끼모양 함

①의 연적은 토끼 모양을 한 연적으로, 철화 기법을 사용하여 눈, 입술, 목에 달링 방울 등을 장식하였다. 입에 이빨을 기존 토끼의 모습보다 과장하여 강조하였고, 방울을 달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통해 친근감을 자아낸다.

②의 함은 토끼 형태의 함으로 몸체가 통통하고, 작은 얼굴과 대비되는 큰 귀, 짧은 다리가 특징인 토끼를 함으로 제작하였다. 몸체와 다리를 분리하여

뚜껑과 몸체를 구분하였으며 안에 소중한 것이나 문구류를 담아 실용성을 더해주었다.

(6) 원숭이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동물로, 매우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특한 모습과 표정, 재치 있는 움직임으로 사람들에게 해학과 유머를 선사한다.

【표 11】 원숭이 관련 유물

	
<p>① 청자 원숭이 모양 떡 항아리</p>	<p>② 원숭이문 벼루</p>

①의 청자 원숭이 모양 떡 항아리는 원숭이가 들고 있는 항아리에 먹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청자로 제작된 문방용품이다. 원숭이의 얼굴은 이빨을 드러내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등에는 꼬리가 감겨있으며 목에 방울을 달아 친근함을 더해주었다. 선조들은 먹을 담는 항아리를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근한 이미지의 동물 형상 문방구를 통해 애정을 담은 예술작품으로서 존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의 벼루는 풀과 대나무 사이에서 뛰어노는 원숭이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예로부터 ‘원숭이 후(猴)’자가 ‘제후 후(侯)’자와 발음이 같아 제후처럼 높

은 벼슬을 의미한다고 믿었으며, 선비들은 원숭이로 장식이 된 문방용품을 사용하며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원숭이의 영리함과 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성공과 권력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7) 닭

닭의 붉은 벼슬과 다양한 색상의 꼬리는 창작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색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선조들에게 닭은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는데, 닭이 새벽에 우는 모습을 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힌다 하여 벽사(壁士)의 능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이러한 외형과 신성한 의미로 인해 닭은 예술 작품에서도 귀중한 주제로 다뤄졌다.

【표 12】 닭 관련 유물



①의 연적은 닭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입에서 물이 나오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닭의 벼슬은 철화로 붉게 칠하였으며 날개와 꼬리는 청화로 장식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깃털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②의 장식품은 백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닭을 형상화하였다. 수탉의 경우 웅장한 꼬리와 벼슬이 특징인데 이를 잘 표현하였으며 깃털과 부리, 벼슬의 질

감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8) 돼지

돼지는 긴 주둥이와 동그란 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작은 귀와 동그랗고 치솟은 코는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로 여겨지게 하였다. 또한 돼지는 식성이 좋고 변화에 잘 적응하며, 돼지꿈은 길몽으로 해석하는 등 복과 풍요의 상징물로 여겨졌다.

【표 13】 돼지 관련 유물



①의 돼지 모양을 한 악기는 오카리나의 일종으로 보여진다. 통통한 몸통에 앙증맞은 귀와 다리, 코 등이 감상자로 하여금 친근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②의 토우는 돼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실제 돼지의 모습 보다 간결한 묘사와 형태로 예술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문방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한 기능과 장식성을 겸비한 용품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많은 수고와 준비가 필요한 붓글씨였기에 나름의 용품들이 필요했겠지만 글씨와 그림을 향유하며 문화를 즐기는데 부족함 없는 용도의 물품들이 만들

어졌다는 점은 주목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문방사우의 장식성에 있어서도 동양적 사고에 근거한 동물들을 사용한 점과 동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이며 함축적 의미를 내포한 형상 표현은 매우 독특한 조형적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2. 데스크웨어

1) 도자 데스크웨어의 종류

‘데스크웨어(Deskware)’는 ‘Desk’와 ‘Ware’의 합성어로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도자공예 분야에서 도자기를 소재로 한 책상 용품 또는 서재 용품을 지칭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데스크 용품 즉 문방용품의 경우 실용적인 이유로 플라스틱 또는 합성소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서적 감성을 이유로 천연재료에 의한 용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도자기의 경우 예로부터 문방용품의 주된 소재로 사용돼 왔으나 소재의 범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점차 합성소재에 밀려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을 사무실로 꾸미는 ‘홈 오피스(Home office)’족이 생겨나는 등 문방용품에 있어서도 특정한 가치를 부여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일하는 공간을 제2의 생활공간으로 여기고, 자신의 책상을 취향대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Deskterior)’가 유행하고 있기에 문방용품은 물론 서재를 구성하는 모든 용품으로 디자인의 가치가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스크웨어의 수요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제는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취향을 반영한 소품으로서 도자 데스크웨어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도자 데스크웨어의 경우 대부분 전통 문방사
우에 기준한 도자 연적 또는 붓 받침 등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
인 문구류에 도자기용 소재를 적용한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해
외의 유명 도자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데스크웨어를 제작하고 있으며 데스크
웨어가 추구하는 감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표 14】 도자 데스크웨어의 사례

분류	품목	사진	내용
필기 용품	만년필		몸통을 도자기로 만든 후 상회로 장식한 만년필이다.
	잉크통		잉크를 담을 수 있는 도자 잉크통이다. 뚜껑이 달려있어 보관하기 편리하며 청화로 겉면을 장식하였다.
	펜받침		펜을 받칠 수 있도록 제작된 펜 받침대이다. 새 모양의 오브제가 달려있으며 구멍이 나 있어 펜을 끼울 수 있다.
정리 용품	북엔드		북엔드는 책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강아지가 벽에 기대어 마주 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북엔드로 제작되었다.
	문구함		문구류를 담아 정리를 도와주는 문구함이다. 사각 형태의 합이며 몸통은 도자기로 제작한 후 청화로 장식하였으며 뚜껑은 나무로 제작되었다.
	명함 케이스		명함을 꽂고 펜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문구용품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섬의 형상을 하였으며 섬 사이에 명함을 꽂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책상 용품	탁상 시계		시계의 외관을 도자기로 제작한 후 청화로 장식한 탁상시계이다. 섬세한 하회 장식과 세련된 형태가 돋보인다.
인테리어 소품	인센스 홀더		인센스를 꽂아 둘 수 있는 도자 인센스 홀더이다. 부드러운 외관의 곡선과 색감이 잘 어우러진다.
	조명		조명의 갓 부분을 도자기로 제작하였고 외관을 상회로 장식한 조명이다.
	디퓨저		긴 원통형의 도자 디퓨저로 뚜껑을 여닫을 수 있으며 높이와 색이 다양하다.

【표 14】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스크웨어 영역은 기본적인 필기용품에서 인테리어 소품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계적 장치는 물론 전자 장치에 의한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장식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동물 형상 또는 식물 문양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최근에는 소재 자체의 질감이나 미니멀적인 성향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2) 도자 데스크웨어의 제작 및 구성

1장에서 고찰한 동물과 문방사우를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도자 데스크웨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 본 도자 데스크웨어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분적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성과 사용의 즐거움 등을 고려하였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동물 형상을 주된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기능을 추가한 아이템을 시리즈 형식으로 제작함으로써 뚜렷한 주제에 의한 세트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에 의한 세트 구성

① 해태 문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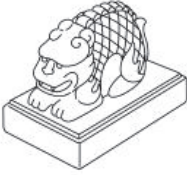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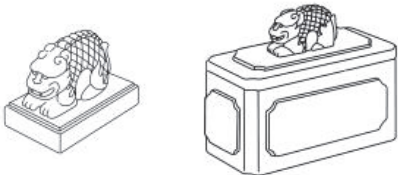
【표 15】 해태 문진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①			

해태 문진은 【표 6】의 광화문 해태 상에서 모티브를 본떠 제작하였다. 뿔이 달리고 무서운 표정의 다른 해태 상과 달리 근엄하고 부드러운 외형이 특징을 돋보이는 광화문 해태 상의 조형적 특징을 근거로 디자인하여 문진으로 제작하였다. 제작에 있어서는 책이나 종이를 누를 수 있는 무게를 고려하여 적절한 소지의 두께와 형상의 크기를 정하였다. 이외에 문진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의 합을 제작하여 세트로 구성하였으며, 합의 전체적인 형태는 팔각으로 면을 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② 용 문진과 명함 케이스 세트

【표 16】 용 문진과 명함 케이스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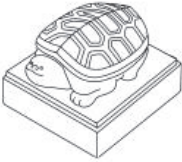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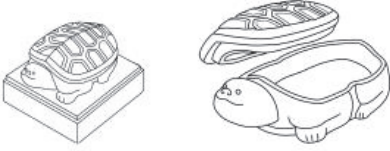
용 문진은 【표 7】의 고종황제 옥새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하였다. 몸통의 길이가 길고 신령스러운 기존의 용 모습과는 달리 짧은 다리와 몸통을 가진 용의 생김새는 매우 익살스러우면서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를 활용하여 유머러스한 형상의 용을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문진으로 제작하였다. 용의 형상은 크기를 달리하여 문진 외에도 뚜껑 손잡이로 의 장식적 활용 등 다양한 세트 구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명함 케이스의 손잡이로서의 기능과 상징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명함케이스의 크기는 기존 명함 크기인 90×50mm의 종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경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③ 거북 문진과 문구 합 세트

【표 17】 거북 문진과 문구 합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③			

거북 문진은 【표 8】의 단종(端宗) 어보를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임금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쓰였던 단종 어보의 근엄한 거북 모습과 달리 친근한 표정의 거북 문진으로 디자인하였고 거북의 등껍질을 세밀하게 조각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동일한 거북의 형상을 크게 키워 뚜껑이 있는 거북이 형상의 합을 디자인하였으며, 등껍질을 열면 안에 클립이나 작은 문구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④ 쥐와 경상 세트

【표 18】 쥐와 경상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④			

쥐와 경상 세트는 쥐가 경상 위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모티브로 기능성보다는 장식성을 강조한 오브제로 제작하였다. 사람처럼 턱을 괴고 있는 쥐의 형상을 묘사하였으며, 경상은 양쪽 날개가 말려 올라간 모습과 몸통에는 수납공간을 표현해 주었다.

⑤ 토끼와 향 합 세트

【표 19】 토끼와 향 합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⑤			

토끼와 향 합 세트는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토끼의 모습을 오브제로 만들었으며 세트 구성으로 향 합을 제작하였다. 【표 18】에서는 경상의 심미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브제로 제작하였는데 본 작업에서는 경상에 실용성을 부여하고자 합으로 제작하여 인센스 스틱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생각하는 원숭이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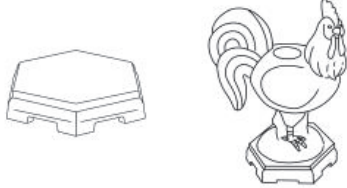
【표 20】 생각하는 원숭이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⑥			

생각하는 원숭이 세트는 피가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를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책상 위에서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과 함께 고민을 해 주는 원숭이 오브제는 감상자에게 여유와 휴식을 준다. 세트 구성으로 목상을 모티브로 한 사각 받침을 제작하였다.

⑦ 닭 촛대 세트

【표 21】 닭 촛대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⑦			

기존의 닭 오브제에서 실용적인 기능을 부여하여 촛대를 제작하였다. 닭 오브제의 세밀한 깃털 표현 대신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촛대를 꽂을 수 있도록 심지를 달았으며 육각 받침을 더해 이미지의 강조와 전체적인 안정감을 주고자 했다.

⑧ 돼지와 화병 세트

【표 22】 돼지와 화병 세트



no	분류	디자인	세트 구성
8			

돼지와 화병 세트는 복스러운 돼지의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여기에 필통과 받침을 더하여 화병 세트를 구성하였으며 함께 쓰이면 화병과 받침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액세서리 트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2) 사물에 의한 세트 구성

① 경상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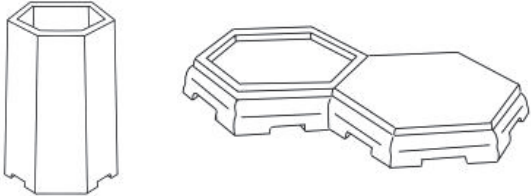
【표 23】 경상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no	분류	디자인
①		

문방에서 쓰이는 책상인 경상은 판의 양 끝이 말려 올라가 있는 특징이 있다. 경상의 이미지를 축소하여 책상을 장식할 수 있는 데스크오브제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경상의 상판을 분리할 수 있게 제작하여 뚜껑을 열면 인센스 스틱을 담을 수 있도록 향 함을 제작하였으며 9~15cm 사이의 인센스 스틱을 담을 수 있도록 크기를 디자인하였다.

② 필통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표 24】 필통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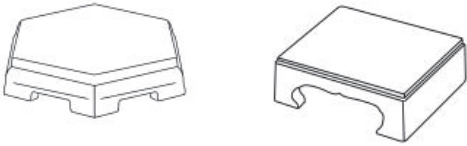
no	분류	디자인
②		

육각 필통을 모티브로 하여 화병을 제작하였다. 받침은 육각형의 모양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인데 윗면의 한 쪽에는 홈이 파져있어 화병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화병과 받침다리에는 작은 홈을 주어 독특한

미감을 주고자 했다. 같이 쓰이면 화병과 받침의 역할을 하지만 따로 쓰일 때에는 액세서리 트레이로 사용될 수 있다.

③ 목상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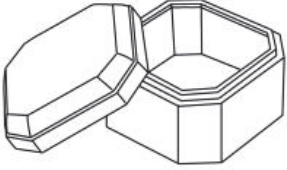
【표 25】 목상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no	분류	디자인
③		

목을 올려두는 목상은 다리가 달린 작은 상의 형태를 하고 있어 오브제나 액세서리 등을 올려둘 수 있는 받침으로 재조명하여 디자인하였다. 외형은 육각, 사각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다리를 내는 부분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투각하여 제작해 주었다.

④ 목통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표 26】 목통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no	분류	디자인
④		

목통을 모티브로 문진 함을 디자인하였다. 목통은 육각, 팔각 등 면을 친 함 형태가 많은데 먹을 보관하는 대신 문진이나 소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⑤ 벼루집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표 27】 벼루집을 모티브로 한 데스크웨어

no	분류	디자인
⑤		

거북의 등껍질을 열어 벼루를 보관했던 벼루집을 모티브로 클립이나 작은 문구류를 보관할 수 있는 문구함을 디자인하였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데스크웨어의 주요 모티브로 동물을 활용함에 있어 해당 동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전통 문방사우에서 표현된 조형적 특질을 토대로 재해석한 형상과 기능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문방사우의 사물 용품에서 얻은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조형적 특성이 강한 특정 목적의 세트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작품 제작

1) 제작 방법

본 연구에 있어 동물 형상은 데스크웨어의 상징적 요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물 단독의 조형적 역할은 물론 형상의 특징을 이용한 기능적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동물의 이미지 표현과 제작 과정은 매우 정교한 기술과 섬세한 표현이 요구된다.

동물원형 제작에 있어 이러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재료로써 와목을 사용하였으며 효율적인 몰드 성형을 위하여 석고뿐만 아니라 실리콘 등을 활용하여 보다 더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제작 공정은 와목에 의한 동물원형을 제작한 후 원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으로 몰드를 뜨고 여기에 석고를 부어 석고 재질의 동물원형을 뽑아낸다. 석고로 동물원형을 다시 제작하는 이유는 석고 상태에서 보다 더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고 성형 몰드 제작 시에도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제작 과정은 일반적인 도자 제조공정과 같다.

본 작업에서 사용한 와목기법과 실리콘 사용 및 제작 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와목을 활용한 동물 형상 원형 제작

동물 형상의 원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와목을 사용하였다. 와목은 수분을 머금으면 말랑해지고 건조되면 딱딱해지는 성질을 가져 재사용에도 용이하다. 분말 형태의 와목을 물에 섞어 반죽하여 성형을 하기에 적합한 점성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반죽한 후, 말랑한 상태의 와목에서는 형태의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주며 반건조 상태에서는 도구를 사용하여 세밀한 조각 표현을 한다.

와목이 너무 건조되면 갈라질 수 있으므로, 틈틈이 습도를 조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붓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여 정리한다.

② 실리콘 몰드를 활용한 석고원형 제작

석고 몰드를 뜨기 위해 원형을 와목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와목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 석고를 붓거나 카리 비누 칠을 할 때 원형이 상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을 사용하여 원형의 가몰드를 떠준 후 석고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원형 주위에 골판지로 가벽을 만들어 준 후, 흙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틈을 꼼꼼히 막아준다.

실리콘은 100g당 경화제 1.7~2g의 비율로 섞어준 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원형에 붓는다. 3~4시간이면 만져도 묻지 않는 정도가 되지만 완전히 건조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실리콘이 모두 건조된 후에는 골판지와 안에 넣은 와목 원형을 제거해 준다. 빈공 간에 석고를 붓고 30분 정도 건조한다. 후에 원형을 꺼내 조각도구나 사포 등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조각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주며 마무리한다.

③ 석고 몰드 제작

제작된 석고 원형에 카리 비누를 칠한 후 석고를 부어 석고 몰드를 제작한다. 석고는 CH 석고를 사용하였으며 석고와 물을 100 대 70의 비율로 교반을 하였다. 원형을 제작할 때는 30분 정도의 건조시간을 가졌지만, 몰드를 제작하여 슬립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수분이 날아가야 하므로 1~2일 정도의 건조시간이 필요하다.

【표 28】은 실리콘과 석고의 경화를 위한 첨가제의 양과 건조시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28】 실리콘과 석고 교반 배합비 및 건조 시간 (단위:g)

실리콘	경화제	건조 시간	
100	1.7~2	12시간	
석고	물	건조시간	
100	70	원형	30분
		몰드	1~2일

④ 슬립 캐스팅

캐스팅은 대부분 몰드에 슬립을 주입하여 기물의 두께가 형성되는 드레인 캐스팅을 이용하였다. 흠이 가마에 들어가면 고온에 노출되어 수축에 의해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각진 형태에서 그 현상이 잘 드러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슬립에 알루미나를 100:10의 비율로 섞어주었다. 알루미나를 섞은 슬립은 고온에서도 비교적 변형이 적어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⑤ 시유 및 소성

1차로 900°C에서 초벌 소성을 마친 기물들을 다듬어 준 후 시유를 위한 작업을 한다. 시유하기 전 합이 경우에는 발수제와 알루미나 가루를 발라 소성 후에 뚜껑과 몸체가 붙지 않도록 해준다. 시유에는 투명유, 투명 매트유, 백 매트유 등을 사용하여 조각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투명유는 광택이나 맑은 느낌을 주지만 조각의 형태가 유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각이 많은 원형의 경우에는 매트한 계열의 유약을 사용하여 형태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사용하여 기물 분위기에 맞는 컬러의 유약을 선택해 시유하였으며 1250°C의 산화와 환원에서 소성하였다.

2) 시작품



【작품 1】 해태 문진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40x140x95, 50x50x55mm

제작 의도 : 시비와 선악을 가린다는 해태의 모습을 문진으로 제작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해태의 모습보다 더 친근한 형태로 디자인하였고, 뒤 쪽에 장식을 달 수 있도록 고리 장식을 달아주었다. 또한 문진을 보관할 수 있는 문진 함을 팔각 함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해태와 함 모두 조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매트한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작품 2】 용 문진과 명함 케이스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78x48x57, 110x55x88mm

제작 의도 : 용을 모티브로 하여 문진과 명함을 넣을 수 있는 합을 제작하였다. 명함 케이스의 뚜껑에는 용 문진과 비슷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부착하여 세트 구성해 주었으며 조각이 돋보일 수 있도록 매트한 계열의 유약을 사용하였다.



【작품 3】 거북 문진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65x65x50, 303x90x20mm

제작 의도 : 예로부터 신의 사자로 여겨져 온 거북을 모티브로 문진을 제작하였다. 현대인의 감성에 맞는 귀여운 표정과 섬세한 조각으로 표현하였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작품 4】 거북 합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95x60x38mm

제작 의도 : 【작품 3】의 거북 문진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하여 같은 형태의 거북 크기를 키워 합으로 제작하였다. 등껍질을 열면 작은 클립이나 문구류를 수납할 수 있으며 등껍질의 조각 형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몸통과 유약을 다르게 하여 시유하였다.



【작품 5】 쥐와 경상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36x36x50, 125x70x35mm

제작 의도 : 선비들이 사용하던 책상인 경상에 의인화된 쥐의 형상을 결합하여 책상 오브제를 디자인하였다. 사람처럼 턱을 पी고 있는 쥐는 감상자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쥐 옆에는 작은 소품이나, 인센스 콘 등을 올려놓을 수 있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품 6】 토끼와 향 합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50x40x42, 167x55x50, 38x10x16mm

제작 의도 : 경상을 책상이라는 용도에서 벗어나 향을 담을 수 있는 합으로 제작하였다. 뚜껑을 열면 인센스 스틱을 보관할 수 있으며, 산 모양 인센스 홀더에 꽂아 향을 피울 수 있다. 또한 귀여운 형상의 토끼 오브제와 함께 향을 피우고 완상하며 삶의 여유를 선사하고자 한다.



【작품 7】 생각하는 원숭이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43x40x50, 65x65x25mm

제작 의도 : 영리하며 피가 많은 동물로 알려진 원숭이를 모티브로 고민이 많은 책상 위에서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오브제를 제작하였다. 마치 사람처럼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있는 원숭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쉼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8】 닭 촛대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112x55x155mm

제작 의도 : 빛을 밝히는 동물로 알려진 닭의 특징을 반영하여 촛대를 제작하였다. 기존 닭의 화려한 꼬리의 표현을 단순화하여 디자인하였고, 등에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바닥에 육각 받침을 더하여 닭 촛대에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9】 돼지와 화병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산화 소성

60x45x50, ø60x93, 135x80x17mm

제작 의도 : 필통과 지통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화병을 디자인하였다. 화병과 받침은 분리되어 있어 따로 쓰일 때는 문구 트레이의 역할을 하며 같이 쓰일 때에는 화분 받침의 역할을 한다. 받침의 한 쪽 면에는 돼지 오브제를 두어 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10】 서재 속 동물들

슬립 캐스팅, 백자, 1250℃, 환원 소성, 산화 소성

제작 의도 : '서재 속 동물들'이라는 주제로 서재 속에 함께하는 데스크웨어와 동물들을 제작하였다. 책상 위에 용기종기 모여 있는 동물들과 데스크웨어들이 사용자에게 영감과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Ⅲ. 결 론

문방사우의 본연에 역할은 필기도구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방사우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써 본연의 기본적 역할을 뛰어넘어 하나의 시대적 정신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과 문화를 반영하는 문방사우는 나름의 용도와 그에 걸 맞는 상징적 의미와 조형적 미감을 동반하고 있기에 활용 여하에 따라 새로운 조형표현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방사우의 구성품을 대상으로 실질적 기능과 조형표현의 내용에 의한 특유의 조형미를 고찰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생활에 적용 가능한 데스크웨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방사우에 있어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와 조형적 미감은 단순한 기능과 실용성을 떠나 삶의 의미를 함축한 동물이라는 대상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치 의인화된 동물의 형상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고도의 압축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물 형상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인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해학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소탈하고 친근감 있는 조형적 미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스크웨어 디자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해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스토리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데스크웨어의 세트 구성을 통해 디오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스크웨어의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세트 구성은 매우 유리한데 이것은 세트를 구성하는 동물과 구성품의 형상과 형태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고 역할을 분산 시킴으로써 데스크웨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용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데스크웨어로서의 상품성과 제작의 효율성을 고려한 제작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와목과 실리콘의 활용은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재료의 조합에 의한 제작방법은 데스크웨어의 원형 제작은 물론 사용형 몰드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 문방사우의 동물 형상에 대한 조형적 미감과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를 활용한 데스크웨어의 세트 구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스토리 구성에 의한 데스크웨어 세트 제작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도홍, 『문방청완 文房淸玩』, 서울: 누리미디어, 2011
- 이연수, 『문방보품/李年洙編』,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2001
- 손환일, 『한국의 벼루』, 서화미디어, 2010
- 박영수,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내일아침, 2005

학술논문

- 장재천, 「문방사우의 교육문화적 의의」, 韓國思想과 文化, Vol.51 No.-, 2010

웹사이트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
- 한국제지연합회 (<https://http://www.paper.or.kr>)

ABSTRACT

A Study on Ceramic Deskware with the Motif of Munbangsau

- Based on Animal Figures -

Kim Mi Hye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Our ancestors, known for their refined tastes and elegance, often showcased their artistic preferences and interests in their frequently used studies by decorating them with Munbangsau, reflecting their personal tastes. Munbangsau is not only practical but also exhibits high artistic merit, serving a dual purpose of cultivating one's mind and spirit through their use. However, in today's era of digitalization and mechanization, the culture of Munbangsau is gradually disappearing, and the use of ceramics on desks is decreasing.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odern, this study seeks to propose contemporary and applicable ceramic deskware inspired by the fading Munbangsau culture. Animal figures, possessing auspicious symbolism and distinct artistic appeal, are a common feature in Munbangsau. The study

aims to incorporate these animal figures, rich in artistic value, into the design process, with careful understanding of their symbolic implications and aesthetic attribute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ontent of stationery based on the Ji, Pil, Muk, Yeon (paper, brush, ink, inkstone) of Munbangsau, and categorizes the symbolic meanings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of animal figures in Munbangsau in concrete terms.

In the process of creating ceramic deskware, we sought new deskware designs by combining the functional and artistic features of Munbangsau with the construction of a story by anthropomorphizing animal figures that imply symbolic meanings.

Through this process, we hope to not only re-evaluate the cultural and artistic importance of Munbangsau but also to implement newly derived expressive techniques in deskware creation. This, we hope, will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our traditional study culture and encourage emotional tranquility among contemporary individuals.